

발행인 칼럼

대천농협 불·편법의 진실, 사법부 역할 크다



가금현 발행인

대천농협 현 조합장인 김 모씨의 문제점이 취재진의 메일로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선거직인 현 조합장에 대해 상대편 후보자들이 흠집 내기에 불과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보자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천농협이 자격도 없는 조합장이 이끌어가는 것이며,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행태로 범죄행위라 여겼다.

이에 CTN 취재진은 조합장에 제보자가 제기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을 직접 방문했지만 조합장이 있었던지는 모르나 출대하는 직원을 통해 현재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대천농협 김모 조합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아닌 댄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다.

분명 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통해 잘못이 나눠질 상황이다.

제보자가 입수해 취재진에게 직접 보여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논란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문제가 있겠다 할 정도로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에 공감을 표할 것이다.

현 조합장의 문제점을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야 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L 조합원은 현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지난 2002년 조합원 B의 농지를 임대해 농지원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고 대천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B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2002년 가을에 했다고 했

지만(녹취록), 조합장의 농지원부 최초등록일은 당해 7월 20일로 돼 있다.

7월이면 B가 이미 해당 토지에 모(씨)를 심어 재배하고 있을 때이며, 벼가 다 자라는 상태에서 토지를 임대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또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인 B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켜,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토지 필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 정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의 당연한 탈퇴 사유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옳은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조합장은 당시 임대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해 얻어진 답변에도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현 조합장은 2014년 1월 소 2마리를 타인축사에 입식하고, 자기 소유라 주장해 조합원 실태 조사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를 근거한 내부 결재 서류에는 담당 직원들이 날인 해야 할 결재공간이 비어있다.

이는 조합장의 소 사육은 서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 조합장은 당시 농협의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직에 자리하면서 조합원 실태조사의 담당 직원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조합원 실태조사 방법이나 필요성에 엄격해야 할 사람 즉 본인이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됐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특히 L 조합원이 제기한 내용에는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건부터 조합장의 자격조건으로 갖춘 공식적인 서류는 2002년 발급받은 농지원부 등 일부분뿐으로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에 위치한 농지를 경매를 통해 구매한 뒤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위탁영농임이 밝혀졌고,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생산된 벼만 본인 명의로 수매한 서류만 내민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은 보이지 않고 편법만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도 지난 법의 심판은 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법으로 법의 칼날을 벗어 난지 모르나, 이런 문제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편법임을 알 것이며, 이를 지켜본 직원과 조합원들도 그의 편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천농협의 더 큰 문제는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을 감사해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고 매년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마찬가지로 돈 수천만원을 주고 있는 상임감사가 있지만 이 농협의 상임감사는 매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기면서 조합장의 이러한 편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역할을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또한 용기이며, 조합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이를 무시한 채 조합장의 눈치만을 살피며 자리에만 연연하겠다는 한다면 조합원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근무 태만에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사법부는 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과 ‘형사고발 건’은 기각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합장 선거무효소송’에서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에 의한 농지원부 발급받은 시점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소는 실제 사육했는지, 경매받은 농지에서 순수 농사를 지었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관계된 조합원(주민)과 조합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직원과 영농회장 등 모든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조합장의 회유 등으로 말을 바꾸고, 확인서를 엉뚱하게 작성한 조합원이 증인으로 참여해 허위진술 할 경우 위증죄로 엄히 다스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매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있는 상임감사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이 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조합원을 헛바지로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을 맞아 학창시절 은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감사를 표했다. 공립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은사님을 찾아 연락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립학교인 고교시절 은사님께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학교상황을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노랫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해서 슬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개한 ‘교권보장 실태와 과제’ 설문문에 따르면 교사 2513명 중 81.1%는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402건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교권 침해 관련 사건 소송 지원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교원에 대한 스토킹 등 도를 넘는 위협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술에 취한 학부모가 새벽에도 수시로 교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하고,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고교 졸업생이 과거 해당 교사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며 협박성 문자를 지속 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단체인 ‘박사방’ 피의자 중 1명으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국회와 교육 당국도 교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입법과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을 받는 교원에 대해 경호원과 경호차량 등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의견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올해 실천교육교사모임 설문에서도 교원 81.6%가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도 ‘교권’이라는 단어조차 교원의 지위와 권리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함부로 행동할 때면 나오는 말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학생 인권이 차고 넘친다’이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요즘 가정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에서 부모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선생도 인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교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처벌조항을 만든 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학교에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친구의 인격을 무시한 학생들도 ‘체벌’이 아니라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인권 강연을 듣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하심탄화하게 소통을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제로소 관계가 아니다. 학생 인권을 억눌러야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교사의 권위도 한 인정을 받게 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권 교육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만물참고]

양상군지(梁上君子)



신동호

CTN교육신문 편집국장

양상군지(梁上君子)를 직역하면 대들보 위의 군자. 즉, 도둑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다.

「진식(陳寔)」은 마을에 있으면서 화평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했으며, 분쟁이 있을 때는 항상 올바르게 판정하며 옳고 그름을 확실히 설명했으므로 돌아가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차라리 형벌을 받을 지언정 진식에게 야단을 맞지 않겠다’고 말하며 탄식했다.

당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수확이 없었는데, 도둑 하나가 밤에 진식의 집에 침입하여 대들보 위에 숨었다.

이를 발견한 진식은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훈계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스스로 힘써 일해야 한다.”

나쁜 사람도 처음부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 잘못된 습관이 성격이 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대들보 위의 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도둑은 크게 놀래 자진해서 바닥으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진식이 그를 깨우쳐 주었다. “그대를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자신을 이기고 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이는 “빈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소.” 진식은 사람을 시켜 도둑에게 비단 두 벌을 주었다. 이로 부터 현에는 더 이상 도둑이 생기지 않았다 한다.

이 이야기는 《후한서(後漢書) 〈진 식전(陳寔傳)〉》에 나오는데, 진식이 대들보 위에 숨어 있는 도둑을 ‘대들보 위의 군자’라고 말한 데서 ‘양상군지’가 유래했다.

또한 소설 삼국지 조조전에서도, 이 양상군지가 등장한다.

자객에게 죽을 뻔한 진기를 진씨네 종복 하나가 뛰어난 무술로 지켜내는데, 진기가 ‘왜 자네 같은 훌륭한 무사가 우리집 하인으로 일하고 있나’라 묻자 “제가 그때의 양상군 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사람이 바로 등전이다. 이와 같은 유래를 보면 도둑도 참회하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있었다.

요즘 정치권이나 고위층들을 보면 자기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덮으려만 하는 작태를 보여주 고 있다.

필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잘못이나 실수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

즉,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은폐를 하는 자는 용서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최고의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독서치료학회 제23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독서치료학회(회장 구자경, 평택대 교수)는 오는 6월 5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서치료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독서치료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코로나 19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사회적 양극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위기의 경험이었다면, 초연결 사회의 극대화, 내면적 가치의 소중함 발견은 또 다른 기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삶의 가치와 행복을 되찾기 위한 독서 치료의 역할과 방향 모색한다.

이번 학술행사 1부는 개인 주제발표, 2부는 기획 주제발표로 진행된 다. 1부는 개인 주제 발표는 한국독서치료학회의 연구동향(강은주 교수, 종신대)을 비롯하여 ‘독서치료 연구와 실천사례’에 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2부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서치료의 새로운 모색’이란 기획 주제로 심도 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고전치유학의 발견”(김승룡 교수, 부산대),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서다-화상 독서치료적 접근”(박정애 소장, 당신의 특별한이야기 상담연구소), “격리, 고립, 그리고 트라우마: 화상 독서치료적 접근”(문혜영 교수, 고려대), “초연결시대 독서의 의미와 치유적 활용 가능성”(홍단비 박사, 강원대)이라는 4개 주제 발표

가 진행된다.

학회장 구자경 교수(평택대)는 초대 글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2003년도에 출범한 이래 독서를 활용한 치유와 성장을 모색하며 다양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독서치료학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독서치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자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금현 기자

CTN 논단

김치의 현주소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이다.

김치의 기원은 2000년전 상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16세기 말 고추가 이 땅에 들어와 채소에 고추와 찹쌀을 양념하는 제조법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김치의 주종인 통배추 김치는 19

세기 말 육종 재배법이 개발되어 결구배추가 생산된 이후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로 인구가 급증. 주거 양식의 변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 지방의 전통 김치가 널리 교류되고 70년대 이후에는 김치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시장 판매와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에 해외 이민확대, 유학생증가, 해외여행 대중화로 세계 각국에 불고기와 김치를 주요 메뉴로 하는 한인 식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국인들도 선호하게 되었다.

김치의 국제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일본산, 중국산 김치가 재빠르게 국제 시장을 잠탈하고 김치의 국제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 시중 식당에는 중국산 김치가 판을 치고 있다.

김치의 중주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명품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명품은 거의 없다. 한화유수제임 중 김치 연구소를 개설, 김치의 연구개발과 재료선택과 절임, 숙성, 포장, 저장, 판매 등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하여 한화명품, 한국명품, 세계명품 김치를 만들려는 시도한 적이 있다.

애석하게 도중하차 했지만, 명품은 장인의 혼이 담겨 있어야 하고 꾸준한 연구개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 국가를 대표 하는 한국의 명품은 언제 탄생할까? 기대해 본다.

독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D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설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 월 1만2000원 / 자매지 월간충탑

본지는 충청탑뉴스(세종)CTN과 발행하며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